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에 대한  
프랑수아 투레티니(1623-1687)의 견해:  
투레티니와 레이데커의 견해에 나타난  
양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

권경철

(충신대학교 개혁신학연구센터 연구원, 역사신학)

- I. 들어가는 말
- II.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에 관한 신학논쟁의 역사
- III.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에 대한 투레티니와 레이데커의 입장 비교분석
- IV. 구약 성도의 지위에 대한 투레티니와 레이데커의 견해 비교
- V. 기존 연구들 평가 및 수정

## [초록]

17세기 이탈리아계 제네바 신학자 프랑수아 투레티니(1623-1687)는 개신교 스콜라주의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 『논박신학강요』를 후대에 남겼다. 그가 그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과 구약 성도의 지위를 놓고 벌어진 요하네스 코케이우스(1603-1669)와 히스베르투스 푸치우스(1589-1676) 사이의 논쟁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이 부분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아왔기에, 이 논문에서 필자는 투레티니가 멜키오르 레이데커(1642-1721)의 푸치우스주의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투레티니가 레이데커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 필자는 투레티니는 『논박신학강요』 제2권에 수록된 주제12번의 질문9-10번과 레이데커의 *Vis veritatis*를 비교 하면서, 레이데커와 투레티니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의 보증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투레티니와 레이데커에 따르면, 택한 백성의 죄악은 약속의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완전하게 사함받는 것이다. 하지만 투레티니는 레이데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레이데커가 익명의 코케이우스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부분만큼은 그대로 차용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투레티니는 레이데커와 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푸치우스주의의 율타리안에 머무르면서도, 좀 더 부드러운 태도로 코케이우스주의자들에게 다가간다. 따라서, 투레티니는 전투적이지 않고, 유화적인 태도로 코케이우스주의자들을 대한 푸치우스주의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투레티니의 입장이 레이데커로 대표되는 푸치우스주의자들의 그것과 다른 것처럼 묘사하는 반 아셀트의 입장은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고, 투레티니의 부드러운 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은 채 그를 푸치우스주의자라고만 단순화해서 묘사하는 것 역시도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투레티니, 구약, 보증, 속죄, 레이데커, 코케이우스-푸치우스 논쟁

논문투고일 2020.07.30. / 심사완료일 2020.09.01. / 게재확정일 2020.09.03.

## 1. 들어가는 말

칼뱅 사후 100년후의 제네바 신학을 책임졌던 프랑수아 투레티니(François Turretini, 1623-1687)는 프란시스 투레티니 혹은 프란시스쿠스 투레티누스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개혁파 정통주의 혹은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17세기 신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명이다. 그는 이탈리아 루카에서 종교개혁 신앙 때문에 제네바로 피난 온 집안의 이민 3세로서 이탈리아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 아카데미 신학교수였던 아버지 베네딕트 투레티니의 뒤를 이어 평생동안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신학 교수 사역을 하였다. 그의 대표저서인 총 세 권의 『논박신학강요』(*Institutio theologiae elencticae*, 1권 1679, 2권 1682, 3권 1685)는, 17세기 개혁파 개신교 신학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백과사전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찰스 핫지가 자신의 조직신학책을 완성하기 전까지 구프린스턴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기도 했던 이 책을 읽어내려가다보면, 로마 가톨릭과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소키누스주의 등에 대한 논박과 신랄한 비판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투레티니가 강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2권에 수록된 주제12번의 질문 9-10번에는 대적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생략되고 그 대신 짙막한 논증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게다가 논쟁의 대상도 가톨릭, 아르미니우스주의, 소키누스주의 등과 같이 명확하지 않고, 다소 불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에 관한 논쟁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요하네스 코케이우스(Johannes Cocceius, 1603-1669)에 대하여 “칭송받는 코케이우스”라는 표현과 함께 존경을 표하면서,<sup>1</sup> 그의 반대자요 푸치우스 학파의 대변자였던 멜키오르 레이데커

\* 본 논문은, 영어로 출판된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Gyeongcheol Gwon, *Christ and the Old Covenant: Christ's Suretyship under the Old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9)을 요약 및 수정하며 번역한 것이다.

1 Turretinus, *Institutio theologiae elencticae*, 12.9.9.

(Melchior Leydekker)의 저서 *Vis veritatis* (진리의 능력)를 읽을 것을 추천하는 등 이 부분에서 투레티니의 행보는 일견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sup>2</sup>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에 대한 투레티니의 구체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그가 자신의 입장을 평소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깊이있게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며, 그나마 있는 연구들도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는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 문제에 있어서 투레티니가 코케이우스의 대척점에 있으며, 이 점에서 투레티니는 레이데커와 그의 스승 푸치우스(Gisbertus Voetius, 1589-1676)와 궤를 같이 한다고 간단히 언급하였다.<sup>3</sup> 투레티니의 언약신학을 연구했던 비치(J. Mark Beach)역시도 바빙크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sup>4</sup> 반면 반아셀트(Willem J. van Asselt, 1946-2014)는 비록 투레티니가 코케이우스주의자는 아니었어도 그의 생각을 푸치우스의 추종자인 레이데커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바빙크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sup>5</sup>

이와 같이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 투레티니의 입장을 그의 시대배경을 및 그의 동시대 신학자들의 견해들과 비교하면서 철저히 분석하며 제시하려는 시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투레티니가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에 관해서 정확히 어떤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표명했으며 그렇게 표명했던 뒷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레이데커의 *Vis veritatis*와 비교하며 풀어냄으로써 학계에 기여하려고 한다. 투레티니는 레이데커와 함께 푸치우스편에 확고하게 서있으면서도, 코케이우스주의에 대한 레이데커의 격양된 비판과는 논조를 달리하며 부드럽게 코케이우스주의를 논박

2 Turretinus, *Institutio theologiae elencticae*, 12.9.20.

3 Herman Bavinck, *Sin and Salvation in Christ*, vol. 3 of *Reformed Dogmatics*, ed. John Bolt, trans. John Frien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6), 213-214.

4 J. Mark Beach, *Christ and the Covenant: Francis Turretin's Federal Theology as a Defense of the Doctrine of Grace* (Göttingen: Vandenhoeck&Ruprecht, 2007), 285.

5 Willem J. van Asselt, "Expromissio or Fideiussio? A Seventeenth-Century Theological Debate between Voetians and Cocceians about the Nature of Christ's Suretyship in Salvation History", *Mid-American Journal of Theology* 14 (2003), 51.

하였다. 이같이 부드러운 논박은, 투레티니 시대 제네바에서 코케이우스주의보다는 그 외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제부터 필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에 관한 신학논쟁의 역사를 개관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과 그에 따른 구약 성도의 지위에 대한 투레티니의 입장을 레이데커의 그것과 비교하여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도출한 결론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들을 수정 및 보완하려고 한다.

## II.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에 관한 신학논쟁의 역사

17세기 코케이우스주의자들과 푸치우스주의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에 관한 신학논쟁은, 보증이라는 의미를 가진 *fidejussio*와 *expromissio*라는 두 개의 로마법 용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의 문제를 그 핵심에 두고 있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따르면, 전자는 빛진 사람이 미처 다 갚지 못하는 빚을 일부 갚아주는 보증을 가리킨다.<sup>6</sup> 후자는 전자만큼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전자와 동의어로 이해되어왔다.<sup>7</sup>

성경에서도 주기도문 등에서 죄를 빚에 비교하고 있기에, 보증이라는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설명하려는 시도 역시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다. 밀란의 감독 암브로시우스(340-397)는 그리스도를 *fidejussor*에 비교하였다. 사탄은 고리대금업자와 같으며, 인류는 빛진 자이며, 그리스도는 그 빚을 갚아주는 보증인과 같다는 것이다.<sup>8</sup> 하지만 암브로시우스 이후로부터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보증이라는 주제는 신학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17세기에 이르러 언약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코케이우스와 그

6 Justinian, *Institutes*, 3.20.4-5.

7 Justinian, *Institutes*, 2.1.40-41; Richard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Drawn principally from Protestant Scholastic Theology* (Grand Rapids, MI: Baker, 1985), 111, 287.

8 Lois Miles Zucker, *S. Ambrosii, De Tobia: A Commentary, with an Introduction and Translation* (PhD diss.,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33), 33.

의 후계자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보증이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코케이우스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구약의 죄용서(πίναρις)와 신약의 죄용서(ἄφεσις)는 질적으로 다르게 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약의 죄용서는 십자가 대속사건 이전이므로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던 반면, 신약의 죄용서는 십자가 대속사건 이후이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죄용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골자였다.<sup>9</sup> 코케이우스 사후에 그의 추종자들은 구원계시의 발전과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fidejussio*와 *expromissio*를 구분하기 시작했다.<sup>10</sup> 구약의 그리스도는 죄를 지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직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fidejussor*라고 불려야 하고, 신약의 그리스도는 실제로 약속을 성취하여 인류에게 남아있는 죄라는 빛을 청산해주었기에 *expromissor*라고 불려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코케이우스 학파의 반대자들인 푸치우스 학파는 원래 로마법에서 *fidejussio*와 *expromissio*가 엄밀하게 구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sup>11</sup> 푸치우스 학파의 주장은 고전과 고전어 연구에 매진하는 인문주의 운동에 힘입어 출간된 헬라어-라틴어 대조사전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 사전들에 따르면, 옛날부터 이 두 용어는 동의어로 사용되었기에, 코케이우스 학파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견 지엽적인 신학논쟁으로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이 논쟁은, 익명의 코케이우스주의자가 『구약과 신약의 죄용서 구분을 놓고 벌인 심각한 논쟁의 상태』(*De staet des gemeynden verschils over het onderscheyd der vergevinge der Sonden onder het Oude en Nieuwe Testament*)라는 책을 써서 푸치우스주의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과열되었다. 오늘날에는 이 책이 소실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레이데커에 따르면 이 책에는 구약 성도보다 나은 지위를 누리면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감사할 줄 모르도록

9 Cocceius, *Moreh nebochim*, §43, §76, §88, §119.

10 Petrus van Mastricht, *Theoretico-practica theologia* (Utrecht and Amsterdam, 1715), 402.

11 Leydekker, *Vis veritatis* (Utrecht, 1679), a:96-98.

만드는 푸치우스주의자들의 이론 때문에 네덜란드가 하나님의 진로를 받는다는 과격한 비판이 담겨있었다고 한다.<sup>12</sup> 마침 1672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연달아 패전하면서 국력이 쇠한 네덜란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격한 발언이 패전의 책임을 푸치우스주의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이에 푸치우스주의자들 역시도 코케이우스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과격한 어조로 비판하며 자신들을 변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에서 푸치우스주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코케이우스주의를 강하게 논박하는 책이 바로 레이데커의 *Vis veritatis*이다.

한편 투레티니의 상황은 레이데커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네덜란드에 거주하지 않는 투레티니 입장에서는, 네덜란드의 패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 당시 제네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톨릭을 신봉하는 사보이와 프랑스의 위협에 맞서서 신앙과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예전에 제네바를 식민지배하던 사보이가 여전히 제네바를 위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679년 루이14세의 사절단이 제네바에 가톨릭 미사를 회복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파견되기도 하였고, 1685년에는 마침내 개신교도들을 관용하겠다는 낭트칙령이 폐기되면서, 제네바의 신앙과 안보가 위협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레티니가 얼마나 위협을 느꼈는지는 그의 『논박신학강요』 제2권 서문에 거듭 등장하는 로마 가톨릭 논박과,<sup>13</sup> 그가 말년에 재출간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의 분열의 필요성과, 그와 합할 수 없음에 관하여』 (*De necessaria secession nostra ab ecclesia Romana et impossibili cum ea syncretismo disputationes*)라는 논쟁서, 그리고 낭트칙령 폐기로 고통받는 프랑스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설교들을 모은 그의 두 번째 설교집 『교회와 현재 상황을 위한, 다양한 성경본문 설교 모음집』 (*Recueil de sermons sur divers texts de l'écriture s. pour l'état present de l'Eglise*)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전에 네덜란드의 도움을 받아 제네바 성채를 보수하였던 제네바와 투레티니에게는, 이런 시국에 로마 가톨릭을 대항

<sup>12</sup> Leydekker, *Vis veritatis*, b:45.

<sup>13</sup> Turretinus, *Institutio*, 2:xxi-xxiii.

하여 함께 싸울 제네바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군이었던 코케이우스 학파와 푸치우스 학파 중에서 그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투레티니는 레이데커로 대표되는 네덜란드 푸치우스 학파보다는 부드럽게 코케이우스주의 자들을 대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투레티니의 작품에서 이 논쟁을 다루는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그가 푸치우스 학파로서 자신의 신학적인 소신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논쟁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겠다.

### III.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에 대한 투레티니와 레이데커의 입장 비교 분석

투레티니의 이와 같은 기대는, 그의 작품을 네덜란드 푸치우스 학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레이데커의 책 *Vis veritatis*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여실히 드러난다. 투레티니의 『논박신학강요』에서 코케이우스-푸치우스 논쟁을 다루는 부분은, 언약신학을 다루는 열 두 번째 주제 중에서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의 성격을 다루는 아홉 번째 질문과 구약 성도의 지위가 신약 성도의 지위보다 열등했는지를 탐구하는 열 번째 질문이다. 레이데커의 경우 총 다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Vis veritatis*라는 책 전체를 코케이우스와 푸치우스 논쟁에 할애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제 이 권이 투레티니의 아홉 번째 질문에 상응하고 제 오 권이 투레티니의 열 번째 질문에 상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레이데커의 제 이권은 크게 두 개의 논쟁주제를 화두로 던지고 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의 성격이 *expromissio*라기 보다는 *fidejussio*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묻고,<sup>14</sup>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값을 실제로 모두 지불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대해 죄의 값을 있는 그대로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계셨는지에 대해 묻는다.<sup>15</sup> 물론

14 Leydekker, *Vis veritatis*, a:72.

15 Leydekker, *Vis veritatis*, a:107.

레이데커는 두 질문에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각각의 논쟁은 세 개의 분과(*sectio*)로 나뉜다. 첫 번째 분과는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는 레이데커가 주장하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나열하며, 세 번째는 반론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투레티니는 논제 제시(*status quaestionis*), 증명, 해법을 위한 자료들(*fontes solutionum*)이라는 삼중 구조에서 『논박신학강요』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Vis veritatis*의 삼중 구조와 닮아있으나, 전체적으로 코케이우스-푸치우스 논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논박신학강요』가 *Vis veritatis*보다 간소화된 경향을 보인다. 일단 투레티니는 레이데커보다 반론에 답변하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짧고, 반론에 대한 답변에 더하여 추가적인 진술들도 들어가 있다. 또한 레이데커가 *Vis veritatis* 제2권에서 두 가지 논쟁주제를 다루었다면, 투레티니는 그것을 하나의 질문으로 뭉뚱그려서 다루고 있다. 그럼으로써 투레티니는 레이데커의 두 번째 논쟁인 십자가 전 구약 성도의 죄 값을 요구하는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증직에 관한 첫 번째 논쟁에 종속시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차이점이 부분적으로는 *Vis veritatis*와 『논박신학강요』의 서로 다른 저작 목적에서 기인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코케이우스-푸치우스 논쟁에 특화된 *Vis veritatis*는 코케이우스주의의 주장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들의 반론에 답변하는 것이 책의 목적을 위해 매우 중요했을 것이지만, 보다 더 광범위한 조지신학 논쟁을 백과사전식으로 다루는 『논박신학강요』의 경우는 같은 정도의 코케이우스주의자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모든 반론에 대한 정밀한 답변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레티니 자신이 『논박신학강요』를 저술할 때 많은 증거와 인용구 나열을 생략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brevitate et perspicuitate*) 각 신학분야를 저술하는 것을 목표로 저술했다고 언급한 것을 생각해 보면,<sup>16</sup> 『논박신학강요』가 *Vis veritatis*보다 훨씬 더 간소하게 코케이우스-푸치우스 논쟁을 다룬 것은 의도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필자는 투레티니와 레이데커의 삼중 구조를 중심으로 실제 본문을 비교 및 대조하며 분석하도록 하겠다.

16 Turretinus, *Institutio*, I:xxv.

## 1. 논제제시, 첫 번째 분과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글을 시작하고 전개하지만, 그 핵심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일단 레이데커는 구약과 신약의 속죄 및 그리스도의 보증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면서, 코케이우스주의 이전에 소키누스주의가 그리스도의 보증에 대하여 오류를 범했었다는 말로 논쟁의 포문을 열기 시작한다.<sup>17</sup>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레이데커가 코케이우스주의와 소키누스주의를 은연중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이다. 한편 투레티니는 레이데커보다 신중하게 그리스도의 보증이란 어떤 분야이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그의 글을 시작한다. 투레티니에 따르면, 은혜 언약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증이므로, 은혜 언약을 다루는 부분에서 그것이 다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sup>18</sup> 이어서 투레티니는 자신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보증과 그리스도의 증보직을 함께 논의할 생각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이 어떠했는지만을 논의할 것이라고 논의의 범위를 규정짓는다.<sup>19</sup> 그러면서 그는 소키누스주의의 그리스도관은 그 어떤 정통이라도 다 거부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취급한다는 것을 밝힌다.<sup>20</sup> 이러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통해 투레티니는, 자신의 입장이 본질적으로 레이데커의 그것과 같으면서도, 동시에 코케이우스주의와 소키누스주의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려고 하는 레이데커의 접근법과 자신의 접근법 간에는 다소간의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서로간의 상이한 도입부분 이후에,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본격적으로 논제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진입한다. 먼저 레이데커는 푸치우스주의자들을 깎아내리는 소책자를 출간함으로써 논쟁을 과열되게 만들었던 “박식한 양반,” (*Vir Doctus*) 즉 익명의 코케이우스주의자에 대해서 언급한다.<sup>21</sup> 반 아셀트는 이

17 Leydekker, *Vis veritatis*, a:72.

18 Turretinus, *Institutio*, 12.9.1.

19 Turretinus, *Institutio*, 12.9.1.

20 Turretinus, *Institutio*, 12.9.2.

21 Leydekker, *Vis veritatis*, a:73.

익명의 코케이우스주의자가 레이데커의 고향 미델부르크(Middelburg)에 설교자로 청빙될 뻔 했던 빌헬무스 몸마(Wilhelmus Momma, 1642-1677)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sup>22</sup>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 레이데커에 따르면, 이 익명의 코케이우스주의자는 법률가들의 구분에 호소하면서, 십자가 사전 이전에는 그리스도에게 죄의 빛이 아직 완전히 전가되지 않았고, 또 그리스도가 그의 보증직분을 포기할 가능성이 남아있었기에,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은 부분적인 보증을 베푸는 *fidejussio*이지, 절대적인 성격을 띠는 *expromissio*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sup>23</sup> 그러나 레이데커는 구주의 영광에 합당한 것은 *expromissio*이지 *fidejussio*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한다.<sup>24</sup> 구약의 그리스도가 *expromissor*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변경 혹은 좌절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고, 따라서 구약 선조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린다.<sup>25</sup>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expromissor*가 아니라면, 그리고 완전한 죄값 지불이 없다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된다.”<sup>26</sup> 레이데커는 또한 이 “박식한 양반”이 그리스도의 보증의 직분을 나누어놓은 것처럼 구약의 죄용서(παρεσις)와 신약의 죄용서(ἄφεσις)를 구분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그와 같은 임의적인 구분은 구약 성도를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정통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의 죄를 단지 간과하시고 그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셨다고만 하면 안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의 완전한 보증으로 인해 하나님의 범정에서 구약 성도들이 이미 무죄 선언을 받았다고 주장해야 옳다.<sup>27</sup>

반면 투레티니는 문제의 소책자 저자나 그에 얽힌 역사적 정황에 대하여 일절 언급하지 않고, 특정 인물이나 논쟁의 구체적인 배경이 아닌, 일반적인 코케이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을 요약함으로써 그의 논제를 제시한다. 레이데커가 “박식한 양반”(Vir Doctus)을 주로 상대하려고 했다면, 투레티니는 “박식한

22 Willem J. van Asselt, “Expromissio or Fideiussio,” 47.

23 Leydekker, *Vis veritatis*, a:73.

24 Leydekker, *Vis veritatis*, a:78.

25 Leydekker, *Vis veritatis*, a:78.

26 Leydekker, *Vis veritatis*, a:77.

27 Leydekker, *Vis veritatis*, a:75.

양반들”(Viri Docti), 즉 보통의 코케이우스주의자들을 논쟁의 상대로 생각하면서 그의 글을 전개해나간다.<sup>28</sup> 투레티니에 따르면 코케이우스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죄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보증의 직분을 저버릴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계셨다는 주장을 했다.<sup>29</sup> 코케이우스-푸치우스 논쟁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보증직이 신구약 성경간의 여러 차이점의 하나로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수행하신 보증직의 성질이 *fidejussio*였느냐 아니면 *expromissio*였는가의 문제였다.<sup>30</sup>

이와 같은 의견상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투레티니의 주장은 레이데커의 주장과 동일하다. 그들은 *expromissio*와 *fidejussio*를 엄밀히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만일 그 용어들을 구분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에 더 가까운 개념은 *expromissio*이지 *fidejussio*가 아니라는 시각을 공유한다.<sup>31</sup>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레이데커보다는 투레티니가 코케이우스주의자들에 대해서 훨씬 더 신사적인 태도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해나가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실제로 레이데커는 위의 두 법률용어를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아마도 “박식한 양반”이 자신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장을 했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고,<sup>32</sup> 투레티니는 그러한 감정적인 언급을 배제한채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리스도의 보증직이 *fidejussio*가 아니라 *expromissio*라는 것이며...우리들은 *fidejussor*와 *expromissor*가 엄밀하게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만 논평하였다.<sup>33</sup> 이와 같은 초연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투레티니는 자신의 『논박신학강요』의 주 독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의 교리교육생(τοὺς κατηχομένους)들과 “하나님께 헌신된 젊은이들,” 즉 신학생들에게는 네덜

28 Turretinus, *Institutio*, 12.9.9.

29 Turretinus, *Institutio*, 12.9.3.

30 Turretinus, *Institutio*, 12.9.3.

31 Turretinus, *Institutio*, 12.9.4; Leydekker, *Vis veritatis*, a:74.

32 Leydekker, *Vis veritatis*, a:74.

33 Turretinus, *Institutio*, 12.9.4.

란드에서 과열되어가던 논쟁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4</sup>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투레티니와 레이데커가 *fidejussio*와 *expromissio*간의 엄밀한 구별의 불가능성을 지적한 것이 그리스도의 보증을 법률용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코케이우스주의에 대한 반론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천상적 보증이 이 땅의 그 어떤 제도와 사회의 법률로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임과 동시에,<sup>35</sup> 두 법률 용어를 엄밀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코케이우스주의를 반박하려고 시도한다. 레이데커가 *Vis veritatis* 제2권 서두에서부터 익명의 코케이우스주의자가 두 법률 용어간의 엄격한 구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표현하듯이, 투레티니 역시도 『논박신학강요』의 제12주제 9문 4절의 둘째 문장, “우리들은 *fidejussor*와 *expromissor*가 엄밀하게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를 부정어 “nec”(영어의 nor)으로 시작함으로써, “*fidejussio*가 아니라 *expromissio*를 통해 선조들이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던 앞 구절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투레티니가 크게 두 가지 근거에서 코케이우스주의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첫째 근거는 믿음의 선조들의 구원과 속죄를 위해 *expromissio*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 근거는 *fidejussio*와 *expromissio*의 엄밀한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두 단어가 서로 “조화롭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공히 종교개혁시대 프랑스의 저명한 법률 연구가 야코부스 쿠야키우스(1522-1590)와 로마 시대 원로원의 소위 벨레이아누스법의 일부를 인용한다.<sup>36</sup>

투레티니와 레이데커가 이처럼 똑같은 근거구절에 호소하고 서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의 글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레이데커는 *Vis veritatis*에서 “제네바 사람으로서 리옹에서 목회사역을 하러

34 Turretinus, *Institutio*, I:xx, xxv.

35 Turretinus, *Institutio*, 12.9.4; Leydekker, *Vis veritatis*, a:80-81.

36 Turretinus, *Institutio*, XII.ix.4; Leydekker, *Vis veritatis*, a:76.

오라고 청빙을 받기도 했던 투레티니 교수는 그의 비견할 수 없는 책 『속죄론』에서 완전히 우리의 편을 들면서 형제들의 새로운 주장을 정죄한다”고 언급하면서, 투레티니가 그리스도의 보증이 형법상의 빛, 즉 죄를 위한 것이지 금전적인 빛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 부분을 직접 인용한다.

형법상의 빛과 금전적인 빛은, 그것의 속상 혹은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그 면제받음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투레티니의 『속죄론』 34쪽을 보라.... 금전적인 빛에 있어서 빛을 준 이는, 빛만 갚는다고 한다면 빛진 자 자신이 빛을 갚든 혹은 보증인(fidejussor)이 빛을 갚든기간에 상관하지 않는다.... 반면에, 형법상의 빛은 법이 정하는 만큼의 엄격성에 따라 죄인 그 자신이 죄책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가 빛 납부를 하는 것으로만은 자유를 얻기에 부족하고, 죄인을 대신해서 다른 이가 납부하는 빛의 대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죄인에게 전가시켜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재판장의 존재가 필수적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보증인에게 형벌이 지워질 때 빛 면제를 받게 된다. 즉, 재판장이 죄인을 방면하고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소키누스주의자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변이다...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흐로티우스(Grotius)가 말하고 투레티니가 반복하는 말을 첨언하는 것이야말로 기쁜 일이다.<sup>37</sup>

이와 같은 찬사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투레티니는 *Vis veritatis*보다 약 3년 후에 출간된 『논박신학강요』 제2권에서, 코케이우스-푸치우스 논쟁에 대해서

37 “Et differt immensum criminalia debita & pecuniaria remittere, pro illis vel hisce satisfacere aut solvere. Vide denuo Turrett. de satisfact. pag. 34.... In debito pecunario perinde est a quo solvatur debitum, sive a debitore ipso sive a fidejussore fiat solutio non curat id creditor.... At alio se modo se res habet in crimine, ubi peccator ipse ut reus ex rigore legis ad poenam obstringitur: ideoque non sufficit ad ejus liberationem ut aliquis solvat, sed necessum est, ut iudicis misericordia & gratia solutionem alterius pro reo acceptet & ipsi ut suam imputet. Et sic fit remissio peccatori, ut ut poena a sponsore postuletur: nempe praeterit iudex peccatorem, alterumque permittit legi satisfacere ejus loco. Et quidem ex hisce fundamentis Socinianis responsum fuit accuratissime....Libet adscribere verba Grotii de Satisfact. Christi, quae reposuit F. Turretinus....” Leydekker, *Vis veritatis*, a:82-83.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분은, 이러한 논증을 견고하고 자세하게 전개해나가는 우트레흐트 신학자요 교수인 칭송받는 레이데커의 책 *Vis veritatis*, 제1번과 2번 논쟁을 참고하라”고 기록한다. 레이데커와 투레티니가 서로간에 주고 받았던 이러한 추천사들로 미루어 볼 때, 투레티니의 『논박신학강요』 XII.ix.4가 *Vis veritatis* 제2권의 첫 번째 분과와 매우 닮아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물론 투레티니가 레이데커의 책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논제제시 부분에서 투레티니는 *Vis veritatis*의 논지배열과 순서를 대체로 따르면서도, 레이데커의 논지 중에서 몇 가지를 생략 혹은 요약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한다. 일단 마레시우스와 유니우스와 탈레누스와 클로펜베르그 등이 사실상 *expromissio*를 지지하며 코케이우스주의자들은 소키누스주의 및 아르미니우스주의와 타협하고 있다는 레이데커의 주장은,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expromissio*”라는 말만을 남긴 채 생략해버렸다.<sup>38</sup> 또한 *πάρεσις*와 *ἄφεσις*간의 구분을 비판하면서 금전적인 빛과 형법상의 빛에 대해서 레이데커가 다루는 부분은, 『논박신학강요』 제10문으로 재배치되었다. 투레티니에 대해서 레이데커가 칭찬하면서 인용하는 부분 역시도 생략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비록 레이데커만큼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서술은 아니더라도 투레티니의 논제제시 부분이 *Vis veritatis* 제2권을 매우 닮아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두 신학자 모두는 *expromissio*를 지지하며, *fidejussio*와 *expromissio*를 법적으로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또한 인간 법의 한계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나타나있으며, 그리스도의 보증이 금전적인 빛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영혼을 위한 보증(*ἀντίφωχος*)이라는 사실도 공통적으로 천명되었다.<sup>39</sup> 무엇보다도, 『논박신학강요』 XII.ix.4와 *Vis veritatis* 제2권의 제1번 논쟁간의 유사성은 자명하다.

## 2. 증명, 두 번째 분과

논제제시 혹은 첫 번째 분과에서 예열을 마친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증명이

<sup>38</sup> Turretinus, *Institutio*, 12.9.4.

<sup>39</sup> Turretinus, *Institutio*, 12.9.4; Leydekker, *Vis veritatis*, a:81.

라고도 하는 둘째 분과에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시작한다. 투레티니는 *fidejussio*보다 *expromissio*를 선호하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레이데커는 10개의 서로 중복되는 주장을 한다.

투레티니는 *expromissio*가 선호되는 첫째 이유로 그리스도 보증의 성격 그 자체를 든다. 즉 “그리스도의 보증이란 다름아닌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의지”를 뜻하는 것이기에, 완전하지 않은 보증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40</sup> 그리스도를 *fidejussor*라고 하는 것은, 성도 스스로가 죄에 대한 속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에 용인될 수 없다.<sup>41</sup> 이사야 53:5-6과 시편 40:7-8의 말씀은 구약 성도의 죄까지도 보증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음을 가르친다.<sup>42</sup>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죄를 담당시키셨다고 말하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죄 값을 대신 치르실 때에야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sup>43</sup> 십자가 대속사역 이전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에게 죄가 전가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대속이 절대적인 보증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리스도의 보증은 *expromissio*이어야 한다.<sup>44</sup> 마찬가지로 투레티니가 보기에 시편 40편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가 율법 제사들을 거부하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예정한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구절이다.<sup>45</sup> 그리스도께 이미 죄가 전가되지 않았다면 시편 40:7-8에서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신속하고 기꺼이 자신을 바치려는 의지를 보이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sup>46</sup>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실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세초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다.<sup>47</sup>

투레티니의 첫 번째 이유에 상응하는 진술은, 레이데커의 *Vis veritatis* 곳곳

40 Turretinus, *Institutio*, 12.9.5.

41 Turretinus, *Institutio*, 12.9.5.

42 Turretinus, *Institutio*, 12.9.6.

43 Turretinus, *Institutio*, 12.9.6.

44 Turretinus, *Institutio*, 12.9.6.

45 Turretinus, *Institutio*, 12.9.7.

46 Turretinus, *Institutio*, 12.9.7.

47 Turretinus, *Institutio*, 12.9.7.

에 흠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와 가장 비슷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증의 성격과 유효성 그 자체”라는 제목이 붙은 여덟번째 주장이다.<sup>48</sup> 그리스도의 보증이 절대적인 성격의 것이기에, 구주께서는 구약 성도의 죄도 짊어지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하신 보증인이기에 그에게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그리하여 창세부터 모든 구원의 혜택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었다.<sup>49</sup>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처럼 세초부터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양과 같다.<sup>50</sup> 비록 여기서 레이데커의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인용구가 투레티니의 인용구와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시편40:7-8을 레이데커가 인용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분명 일치하고 있다.

둘째로 투레티니는, 하나님 입장에서나 보증인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나 성도의 입장에서나 어느 면에서 보아도 *expromissio*가 적절하다고 진술한다.<sup>51</sup>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적절하다.<sup>52</sup> 그리스도의 속죄를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유케하는 그리스도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여전히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sup>53</sup>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의 보증은 예정되어 있었기에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를 막론하고 그의 보증의 효력은 동일하다.<sup>54</sup> 이러한 보증은 *fidejussio*일 수 없다.<sup>55</sup>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완전하심처럼 그리스도 보증 역시도 완전하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순종하여 영원 전에 자신을 성부께 드리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증은 *fidejussio*가 아니라 *expromissio*라고 표현되어야 한다.<sup>56</sup> 그리스도의 *expromissio* 덕분에 구약 성도들은 형벌과 죄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기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빛 지불이 요구되지 않는다.<sup>57</sup> 그러면서 투레티니는 “박식한 양반”

48 Leydekker, *Vis veritatis*, a:92.

49 Leydekker, *Vis veritatis*, a:92-94.

50 Leydekker, *Vis veritatis*, a:95.

51 Turretinus, *Institutio*, 12.9.8.

52 Turretinus, *Institutio*, 12.9.8.

53 Turretinus, *Institutio*, 12.9.8.

54 Turretinus, *Institutio*, 12.9.8.

55 Turretinus, *Institutio*, 12.9.8.

56 Turretinus, *Institutio*, XII.ix.9.

코케이우스도 이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sup>58</sup>

레이데커 역시도 투레티니와 동일하게 “보증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고려해도 그렇고 그 보증의 직분을 정하시는 재판장되신 성부를 고려해도 그렇고 그리스도는 *expromissor*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59</sup> 투레티니가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에 호소했던 것처럼, 레이데커 역시도 하나님의 의와 지혜에 적절한 것이 *expromissio*라고 본다.<sup>60</sup>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에, 원래 죄를 지은 이들의 빛 지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보증만이 지불완료(*solutio*) 및 속상(*satisfactio*)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sup>61</sup>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부터만 빛 지불을 요구하신다.<sup>62</sup>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과 의와 권능을 나타내는 택함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자유”야말로, 그리스도의 시간을 초월한 보증이 목표로 하는 것이다.<sup>63</sup> 그와 같은 완전한 구원이 택한 성도들에게 허락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의 보증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무한하심을 반영하는 것이어야만 한다.<sup>64</sup>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속언약(*pactum salutis*)을 통해 변함이 없고 취소되지 않는 작정을 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완벽한 보증 역시도 언제나 *expromissio*이어야만 한다.<sup>65</sup>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레이데커는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여러 글들과 함께 코케이우스의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교리 대전』(*Summa doctrinae de foedere et testamento Dei*) 중 134분과(*sectio*)를 인용하는데, 사실이 같은 구절을 투레티니 역시도 인용하고 있다.<sup>66</sup>

셋째로, 투레티니는 구약시대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분은 *fidejussor*가 아니라 *expromissor*였다고 말한다.<sup>67</sup> 빛을 준 사람에게, 꼭 보증

57 Turretinus, *Institutio*, XII.ix.9.

58 Turretinus, *Institutio*, XII.ix.9.

59 Leydekker, *Vis veritatis*, a:86.

60 Leydekker, *Vis veritatis*, a:86.

61 Leydekker, *Vis veritatis*, a:87.

62 Leydekker, *Vis veritatis*, a:86.

63 Leydekker, *Vis veritatis*, a:86, 88, 90.

64 Leydekker, *Vis veritatis*, a:86.

65 Leydekker, *Vis veritatis*, a:86.

66 Turretinus, *Institutio*, XII.ix.9; Leydekker, *Vis veritatis*, a:93.

67 Turretinus, *Institutio*, 12.9.10.

인 자신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어떻게든 빛을 값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죽한 *fidejussor*의 개념은 영혼을 대속함으로써(ἀντίψυχος) 형벌을 면제시키는 그리스도의 보증개념에 어울리지 않는다.<sup>68</sup>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증의 능력에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구약 성도들은 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expromissio*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sup>69</sup>

마찬가지로 레이데커도 성도들이 죄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expromissio*가 필요하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한다.<sup>70</sup> 영혼을 위한 보증인(ἀντίψυχος)은 단순히 자신의 신용을 걸고 금전적인 빛을 값겠다고 약속하는 *fidejussor*정도일 수 없다.<sup>71</sup> 영혼을 위한 보증인은 성도들을 모든 형벌과 개인적인 제반 의무로부터 구해 주기 위하여 형법상의 빛을 보증인 자신이 홀로 짊어지고 그것을 모두 값아주는 분이어야만 한다.<sup>72</sup>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정하신 “그리스도 보증의 능력”을 힘입어 구약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73</sup>

넷째로, “그리스도의 *expromissio* 보증에는 절대성과 변함없음과 확실성이 포함된다”고 선언했던 레이데커를 따라,<sup>74</sup> 투레티니는 그리스도 보증의 탁월성에 적합한 것은 *expromissio*라고 주장한다.<sup>75</sup> 빛진 이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넘겨받음으로써 빛진 이를 자유케하는 *expromissio*처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빛 지불이 요구됨으로써 죄의 빛을 진 성도가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sup>76</sup>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보증의 목적에 부합한다.<sup>77</sup> 레이데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보증의 탁월성을 고려하면 빛진 이에게 그 어떤 의무도 지우지 않고 모든 것을

68 Turretinus, *Institutio*, 12.9.10.

69 Turretinus, *Institutio*, 12.9.10.

70 Leydekker, *Vis veritatis*, a:85.

71 Leydekker, *Vis veritatis*, a:85.

72 Leydekker, *Vis veritatis*, a:85.

73 Leydekker, *Vis veritatis*, a:85-86.

74 Leydekker, *Vis veritatis*, a:87.

75 Turretinus, *Institutio*, 12.9.11.

76 Turretinus, *Institutio*, 12.9.11.

77 Turretinus, *Institutio*, 12.9.11.

보증인이 짊어지는 *expromissio*가 *fidejussio*보다 적절한 개념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sup>78</sup> 그리스도 보증의 목적이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임을 고려하면,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는 *expromissor*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sup>79</sup>

이처럼 두 번째 분과에서도 『논박신학강요』와 *Vis veritatis*가 일치한다는 사실이야말로, 레이데커 뿐만 아니라 투레티니 역시도 푸치우스주의자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레이데커와 마찬가지로 투레티니는, 그리스도의 무한하며 영원한 능력을 고려할 때 구약 성도의 구원은 완전해야 하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증은 완벽한 성격의 것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레이데커와 투레티니는 공히 구약 성도의 구원이 완전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코케이우스주의를 논박했던 것이다. 투레티니가 레이데커의 논증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재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투레티니가 레이데커를 통하여 푸치우스주의 전통을 받아들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 3. 해법을 위한 자료들, 세 번째 분과

앞에서 살펴보았던 부분들에서 우리는 투레티니가 레이데커의 논증을 약간의 재구성만 거쳐서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세 번째 분과는 다소 예외적인 면이 있다. 왜냐하면 레이데커의 세 번째 분과에 상응하는 투레티니의 ‘해법을 위한 자료들’ 부분은, *Vis veritatis*의 논증순서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레이데커는 이 부분에서 코케이우스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온갖 반론에 답변하는 것에 치중하는 반면, 투레티니는 반론보다도 추가적인 진술을 하는 것에 더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분석해보면, 이러한 외관상의 차이를 뛰어넘는 내용상의 일치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일단 투레티니는 “하나님께서서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원래의 빛진 이들로부터 빛 지불을 요구하실 자유 혹은 권리를 언제나 보유하고 있었다”는 코케이우스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점은 레이데커가 *Vis veritatis*

<sup>78</sup> Leydekker, *Vis veritatis*, a:87.

<sup>79</sup> Leydekker, *Vis veritatis*, a:88.

제2권의 두 번째 논쟁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었었다.<sup>80</sup>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결정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작정 개념을 붙드는 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죄 값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은 설 자리가 없다고 천명한다.<sup>81</sup> 공동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빛 지불만을 요구하신다.<sup>82</sup> 푸치우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보증을 영원 전에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죄 값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지혜와 진리와 선하심과 긍휼에 어울리지 않았다.<sup>83</sup>

이어서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코케이우스주의자들이 상상했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보증물(*vadimonium*)을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는다.<sup>84</sup> 인간의 보증물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참되고 능력있고 이상적인” 보증은 구약성경과 하나님의 작정을 모두 뒤엎지 않고서야 버려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sup>85</sup> 이와 마찬가지로 레이데커도, 그리스도는 자신이 약속한 보증물에 절대적으로 매였다고 진술하면서,<sup>86</sup> 코케이우스주의가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께 성별된 보증물이 되었다고 가르치는 구약성경의 가르침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sup>87</sup> 참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작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보증인으로서의 직분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sup>88</sup>

투레티니가 코케이우스주의자들의 제안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신자 간에 존재하는 연합의 교리 때문이었다. 비록 구약시대에는 빛 지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연합하여 그들의 빛을 대신 갚아주시기로 약속했기에 그들은 죄의 빛으로부터 풀려난 것이다 (고후 5:15, 21).<sup>89</sup> 투레티니 뿐만 아니라 레이

80 Turretinus, *Institutio*, 12.9.12; Leydekker, *Vis veritatis*, a:107.

81 Turretinus, *Institutio*, 12.9.12; Leydekker, *Vis veritatis*, a:111.

82 Turretinus, *Institutio*, 12.9.12; Leydekker, *Vis veritatis*, a:116.

83 Turretinus, *Institutio*, 12.9.12; Leydekker, *Vis veritatis*, a:113.

84 Turretinus, *Institutio*, 12.9.13; Leydekker, *Vis veritatis*, a:105.

85 Turretinus, *Institutio*, 12.9.13.

86 Leydekker, *Vis veritatis*, a:103-104.

87 Leydekker, *Vis veritatis*, a:120.

88 Leydekker, *Vis veritatis*, a:78, 105.

데커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실 죄의 대가를 구약 성도가 직접 지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sup>90</sup> 구약성도들이 단독으로든 혹은 하나님과 협력해서이든 죄의 빚을 지불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고, 오직 그리스도 보증의 능력만이 빚을 지불할 수 있었다.<sup>91</sup>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성도들을 위해 대속사역을 감당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덕분에, 구약 성도들은 죄와 형벌 아래 있지 않았다.<sup>92</sup> 하나님이지요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 택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 당할 것이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가 시간 속으로 들어와 죄와 저주가 되셨다고 말하는 것이 불경한 일이 아니듯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 역시도 영원전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sup>93</sup> 비록 레이데커가 코케이우스주의를 논박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투레티니만큼 부각시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두 신학자가 본질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강조한 후에, 투레티니는 금전적인 빛과 형벌적인 빛의 구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구분에 대해서는 레이데커가 이미 *Vis veritatis* 제2권의 첫 번째 논쟁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다. 금전적인 빛의 전가는 형법적인 빛의 전가와 구분되는데, 왜냐하면 전자는 빌린 돈의 액수만을 고려하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반면, 후자는 사람에 관한 것이며 그것에 상응하는 형벌을 면제받는 길 역시도 빛진 사람을 대신하는 보증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sup>94</sup> 물론 개인적인 책임문제는 보증인에게 전가되지는 않고 은혜롭게 사라지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여전히 우리의 죄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으로 빚을 갚아주신 것이다.”<sup>95</sup> 레이데커 역시도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은 그리스도에게 옮겨지지 않고, 은혜로이 사라진다”고

89 Turretinus, *Institutio*, 12.9.14.

90 Turretinus, *Institutio*, 12.9.14; Leydekker, *Vis veritatis*, a:116.

91 Turretinus, *Institutio*, 12.9.14; Leydekker, *Vis veritatis*, a:117.

92 Turretinus, *Institutio*, 12.9.14; Leydekker, *Vis veritatis*, a:117.

93 Turretinus, *Institutio*, 12.9.15; Leydekker, *Vis veritatis*, a:113-114.

94 Turretinus, *Institutio*, 12.9.16; Leydekker, *Vis veritatis*, a:82-83.

95 Turretinus, *Institutio*, 12.9.16.

기록하고 있다.<sup>96</sup> 비록 표현이 약간 달라지기는 했으나, 여기서 투레티니와 레이데커가 공통된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여기서 공히 “속상을 통한 속죄”와 “빛 지불을 통한 해방”을 구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97</sup> 게다가 투레티니가 성도의 개인적인 책임이 보증인에게 전가되지 않고 은혜롭게 사라진다고 한 것도, 형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레이데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투레티니와 레이데커가 함께 주장하는 바는, 죄인이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성도 대신 벌을 받으시고 그들의 책임은 면제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은혜로우신 재판장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98</sup> 동시에 두 신학자는 법정적인 용어의 한계를 지적하는 일도 잊지 않는다. 판사가 채무지불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새롭게 넘기는 것 (novation)이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보증을 완전하게 설명하기에 부족하다.<sup>99</sup>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은 형법상의 죄를 위한 것이었지, 금전적인 빚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sup>100</sup>

9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투레티니는 몇 가지를 추가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는 서술은 레이데커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레이데커와 마찬가지로 투레티니는 히 7:22이 신약 시대 뿐만 아니라 구약 언약까지도 포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성구에서 보증을 뜻하는 헬라어 ἔγγυος가 *fidejussio*뿐만 아니라 *expromissio*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01</sup> 그리고 그와 같은 번역은 전설적인 헬라어 사전 편찬자 알렉산드리아의 헤시키우스(5세기에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 파리의 인문주의자 귀욤 뷔데(Guillaume Budé, 1468-1540), 그리고 코케이우스의 선생님인 마티아스 마르티니우스(Matthias Martinius, 1572-1630)의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된다.<sup>102</sup>

<sup>96</sup> Leydekker, *Vis veritatis*, a:100.

<sup>97</sup> Turretinus, *Institutio*, 12.9.16; Leydekker, *Vis veritatis*, a:84.

<sup>98</sup> Turretinus, *Institutio*, 12.9.16; Leydekker, *Vis veritatis*, a:83.

<sup>99</sup> Turretinus, *Institutio*, 12.9.17; Leydekker, *Vis veritatis*, a:99-100.

<sup>100</sup> Turretinus, *Institutio*, 12.9.17; Leydekker, *Vis veritatis*, a:100.

<sup>101</sup> Turretinus, *Institutio*, 12.9.18; Leydekker, *Vis veritatis*, a:98.

<sup>102</sup> Turretinus, *Institutio*, 12.9.18; Leydekker, *Vis veritatis*, a:98.

뿐만 아니라 레이데커와 투레티니는 공통적으로, 자원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천상의 그리스도와 율법적으로 바치는 이성 없는 짐승 제물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언급을 한다.<sup>103</sup> 따라서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거하여 시간과 상관없이 증보자 그리스도의의 혜택을 모두 누렸다는 것이다.<sup>104</sup>

마지막으로 투레티니는, 골 2:14를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 살았던 구약 성도들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chirographum) 아래 있어서 제사 때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했던 코케이우스 주의자들을 논박한다. 의식법과 그것이 규정한 제사들은 율법적인 측면에서(σχεσει) 보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요 행위언약을 위반한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일 수 있겠으나, 동시에 그것은 롬 4:11과 고전 10:4이 암시하듯이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고 칭의를 해주시는 보증인 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하다.<sup>105</sup> 레이데커 역시도 롬 4:11과 고전 10:1-3을 인용하면서 동일한 언급을 한다. 그에 따르면, 모세 언약의 시대에 의식법이 율법적인 측면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로서 기능하면서 행위언약을 위반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한 죄의 공포 아래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복음적인 측면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죄로부터의 자유 및 칭의의 표상이기 때문이다.<sup>106</sup>

지금까지 *Vis veritatis* 제2권의 세 번째 분과와 『논박신학강요』 열두 번째 주제의 9문 해법을 위한 자료들 부분을 비교하면서, 그것들이 서로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밝혔다.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공통적으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에 힘입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작정으로 말미암아 결정된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완벽한 제사가 구약 성도들을

103 Turretinus, *Institutio*, 12.9.19; Leydekker, *Vis veritatis*, a:117.

104 Leydekker, *Vis veritatis*, a:77, 100.

105 Turretinus, *Institutio*, 12.9.20.

106 Leydekker, *Vis veritatis*, a:116.

완전히 구했다는 것을 주장했고, 금전적 빛과 형법적 빛에 대한 구분을 소개했으며, *expromissio*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인간사회에서 빛을 전가시키는 원리와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원리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제외하면, 사실상 *Vis veritatis*의 모든 주요 주제가 『논박신학강요』에서 간략하게나마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측면도 레이데커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서술을 보다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투레티니는 “독창적인 사상가라기보다는 여러가지 의견을 모아서 종합하는” 사람답게,<sup>107</sup>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 분야에 있어서 이미 레이데커가 서술했던 전형적인 푸치우스주의적 견해를 자신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IV. 구약 성도의 지위에 대한 투레티니와 레이데커의 견해 비교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에 관한 논쟁은 자연스럽게 그 보증의 혜택을 받았던 구약 성도들의 죄사함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각각 『논박신학강요』 열두번째 주제의 열번째 질문과 *Vis veritatis* 제5권에서 이 연관된 문제를 다루면서, 구약 성도들이 죄책으로부터 완벽하게 건짐을 받았음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투레티니가 레이데커에게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의존하면서도, *Vis veritatis*를 있는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짧고 명료하게” 개량하고 편집함으로써, 레이데커와는 구분되는 자신만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투레티니와 레이데커간의 공통점은 두 번째 분과인 증명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먼저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구약 시대에도 이미 *expromissor*에게 죄가 전가되었기에, 구약 성도들은 완전한 칭의를 받아 죄책에서 벗어나고 양심의 깨끗함을 입었다는 점을 지적한다.<sup>108</sup> 투레티니는 그리스도의 보증직 자체가

107 Richard A. Muller, *After Calvin: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a Theological Tra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44.

108 Turretinus, *Institutio*, 12.10.9-12; Leydekker, *Vis veritatis*, b:38-40.

그리스도께 죄가 실제로 전가되는 것을 전제하기에, 구약 성도들은 죄책과 모든 개인적인 책임으로부터도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선언한다.<sup>109</sup> 마찬가지로 레이데커도 “그리스도의 *expromissio*라는 완전한 구약 언약 보증 덕분에, 죄의 빛들이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이라고 하였다.<sup>110</sup>

이어서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구약 성도들이 은혜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죄와 저주 아래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투레티니에 따르면, 은혜 언약에 참여한 그들이 죄책과 진보와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진노와 화목을 조화시키고, 복과 저주를 조화시키며 칭의의 상태를 죄책과 조화시키는” 셈이므로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sup>111</sup> 레이데커 역시도 “그리스도의 의와 죄책”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는 것은 모순적임을 지적한다.<sup>112</sup>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제거하는 은혜언약 아래에 있던 옛 성도들이 보증인 그리스도의 혜택을 미리 누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113</sup>

죄책의 성격 역시도 구약 성도의 지위를 낮게 볼 수 없도록 하는데 일조한다. 만약 구약 성도가 죄책 아래 있었다면 그들은 “일반적인 형벌”이나 “개인적인 형벌”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에 매여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한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sup>114</sup> 왜냐하면 형벌적인 빛은 금전적인 빛과 달라서, 일반적인 형벌은 이미 보증인 그리스도께로 넘어가고 개인적인 책임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지 않고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이다.<sup>115</sup>

구약 믿음의 조상들이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는, 신자들의 칭의 받는 믿음과 그들의 성화이다. 투레티니에 따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미래 속죄사역의 확실성을 믿었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것을 이해하고 믿었다.<sup>116</sup> 아직 드러지지 않았을 때에도 어떤

<sup>109</sup> Turretinus, *Institutio*, 12.9.9-17.

<sup>110</sup> Leydekker, *Vis veritatis*, b:38.

<sup>111</sup> Turretinus, *Institutio*, 12.10.10.

<sup>112</sup> Leydekker, *Vis veritatis*, b:37.

<sup>113</sup> Turretinus, *Institutio*, 12.10.10; Leydekker, *Vis veritatis*, b:110.

<sup>114</sup> Turretinus, *Institutio*, 12.10.11; Leydekker, *Vis veritatis*, b:53-55.

<sup>115</sup> Turretinus, *Institutio*, 12.10.11; Leydekker, *Vis veritatis*, b:53-54.

<sup>116</sup> Turretinus, *Institutio*, 12.10.13.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드러졌다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힘입어 구약 성도들은 양심의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sup>117</sup>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외 구약 성도들의 예를 보면 이러한 점이 더욱 확실해진다.<sup>118</sup> 칭의와 성화의 구원 서정 상의 연결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칭의 받는 믿음은 구약 성도들에게 성화, 즉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sup>119</sup> 레이데커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한다. 아브라함과 시편 기록자들과 선지자들이 가졌던 “믿음의 성격과 그 효용성”으로 미루어볼 때, 구약 믿음의 조상들은 죄 아래 있지 않았고 불편한 양심으로 고통받지도 않았으며,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보증 및 가장 확실한 미래의 속죄” 속에서 안식을 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20</sup>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에, 그들이 칭의에 따라오는 성화의 은혜 역시도 누렸다는 점이 확실해진다.<sup>121</sup>

구약 성도의 구원이 신약 성도의 구원보다 열등한 성격의 것이 아니었기에,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구약의 죄사함과 신약의 죄사함이 서로 엄밀하게 구별된다는 코케이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을 거부한다. 코케이우스주의자들은 구약의 죄사함은 죄를 간과하심(παρεσις)이었고, 신약의 죄사함(ἄφεσις)만이 본질적인 죄사함이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던 반면,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뷔데와 헤시키우스가 두 용어를 교호적인 것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역시도 두 용어를 상호 호환적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22</sup> 구약에서 속죄에 해당하는 단어들인 כפר, אשם, סלח의 용례를 분석해보면, 죄 간과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죄사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23</sup> 더욱이 신약성경은 요한의 세례와 십자가 전 예수님의 죄 용서를 ἄφεσις라는 단어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눅 5:20; 7:47; 마 6:12, 14), 선지자들의 메시지(행 10:43)와 구약 성도의 칭의(롬 4장)를 모두 ἄφεσις로 표현하고 있다.<sup>124</sup> 그러므로 구약 성도의

117 Turretinus, *Institutio*, 12.10.13.

118 Turretinus, *Institutio*, 12.10.13.

119 Turretinus, *Institutio*, 12.10.13-14.

120 Leydekker, *Vis veritatis*, b:57-58.

121 Leydekker, *Vis veritatis*, b:55.

122 Turretinus, *Institutio*, 12.10.15; Leydekker, *Vis veritatis*, b:329-337.

123 Turretinus, *Institutio*, 12.10.15; Leydekker, *Vis veritatis*, b:329-337.

죄사함은 “완전한 죄사함”이 되기에 충분했다.<sup>125</sup>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해법을 위한 자료들 혹은 세 번째 분과에서도 공동전선을 펴면서, 코케이우스주의자들의 근거구절로 오해될 수 있는 몇 가지 성경구절들을 분석함으로써 자신들의 논지를 강화한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분석하는 성경구절은 로마서 3:25, 예레미야 31:33-34, 히브리서 10:1-3, 10:18, 스가랴 3:1이다. 먼저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로마서 3:25에서 *πάρεσις*와 *ἄφεσις* 사이에 구분의 근거를 찾는 코케이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은, 로마서 3:25에 나오는 *δικα*를 원인으로서는 뿐만 아니라 결과 혹은 목적으로서도 해석할 수 있기에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한다.<sup>126</sup> 둘째로 그들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언약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의 본질적인 차이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옛언약에 비해서 새언약이 그 양식과 정도에 있어서 대단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해명한다. 셋째로는 코케이우스의 사상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히브리서의 성구들을 분석하면서, 그 성경구절들이 속죄의 “공로적 원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구약에서도 미리 효력을 발휘했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sup>127</sup>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래 제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설명한다.<sup>128</sup> 마지막으로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스가랴 3:1을 가지고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예표적으로 나타난 보증을 통해 사단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증명한다.<sup>129</sup>

흥미로운 것은, 투레티니와 레이데커가 위와 같은 공통된 견해를 표명하면서도 그 설명 방식이나 강조점에 있어서 때때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은 바로 투레티니와 레이데커의 논지제시 부분인 첫 번째 분과이다. 투레티니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코케이우스주의를 반박하기 전에 논지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네 가지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 있다. 첫째, 논쟁이 있는 부분은 구속이 이뤄진 시점이 아니라 그것의 적용

124 Turretinus, *Institutio*, 12.10.16.

125 Leydekker, *Vis veritatis*, b:338.

126 Turretinus, *Institutio*, 12.10.18-19; Leydekker, *Vis veritatis*, b:353-355.

127 Turretinus, *Institutio*, 12.10.22; Leydekker, *Vis veritatis*, b:360-361.

128 Turretinus, *Institutio*, 12.10.24-26; Leydekker, *Vis veritatis*, b:154-156.

129 Turretinus, *Institutio*, 12.10.31; Leydekker, *Vis veritatis*, b:205-206.

부분이다.<sup>130</sup> 둘째로, 율법적인 동물 제사의 임시적인 속죄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며, 단지 구약의 제사에서 그리스도의 제사가 예표되면서 동물 제사에서도 은혜가 효력있게 나타났는가 여부가 논쟁의 주제이다.<sup>131</sup> 셋째로, 구약에서의 속죄와 위로와 평화가 신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 논쟁이 있는 부분은 구약의 죄사함이 간과하심일 뿐이고 본질적으로 완전한 속죄가 아니었는지의 여부이다.<sup>132</sup> 넷째로, 논쟁이 일어난 부분은 신약시대의 완전한 속죄와 칭의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미래에 죄 값을 치르실 것에 힘입어 구약 성도에게 완전한 속죄가 제공되었는지에 관한 부분이다.<sup>133</sup> 이와 같은 신중한 접근을 통해, 투레티니는 코케이우스주의의 신학적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과장하지 않고 정확히 건드리는 절제된 논박을 하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다. 반면 레이데커는 초장부터 정통주의와 코케이우스주의의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코케이우스주의가 교황주의 뿐만 아니라 아르미니우스주의 항론파 및 영국 율법폐기론자들과 닮았고, 절반쯤은 펠라기우스주의를 닮기도 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sup>134</sup>

게다가 레이데커는 코케이우스주의에 대한 경계심 때문인지 구속역사의 발전에 대해서 투레티니보다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투레티니는 사 49:9 및 61:2 해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성구들을 절대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신약에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암시하는 구절로 해석할 것을 주문했던 반면,<sup>135</sup> 레이데커는 위의 성구들을 아예 인용하지도 않는다. 또한 투레티니는 은혜언약을 세 시대로 구분하는 문제를 코케이우스주의 논박의 일부로 보지 않고 소뮈르 학파 논박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레이데커는 그것 역시도 진지한 코케이우스주의 논박의 일부라고 여기고 있다.<sup>136</sup> 물론

<sup>130</sup> Turretinus, *Institutio*, 12.10.2.

<sup>131</sup> Turretinus, *Institutio*, 12.10.3.

<sup>132</sup> Turretinus, *Institutio*, 12.10.4.

<sup>133</sup> Turretinus, *Institutio*, 12.10.5.

<sup>134</sup> Leydekker, *Vis veritatis*, b:50.

<sup>135</sup> Turretinus, *Institutio*, 12.10.30.

<sup>136</sup> Turretinus, *Institutio*, 12.12.1-25; Leydekker, *Vis veritatis*, a:49-71.

레이데커가 때때로 구속사의 발전에 대하여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한 언급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한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구약 의식법은 출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죄에 대한 징벌로서 생겨난 것이라는 코케이우스의 특이한 주장을 논박함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투레티니는 이 주장을 율법에 대해서 다루는 『논박신학강요』 열한번째 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레이데커는 이 주장을 논박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여겨서 *Vis veritatis* 제5권 초입에서부터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부분은, 투레티니가 코케이우스주의자들과의 논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레이데커는 투레티니의 속죄론 책까지도 자기 편으로 끌어와서 사용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책은 내용상으로부터 시대적으로 보나 코케이우스 논박을 담은 책이 될 수가 없다. 일단 그 책은 코케이우스 논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저술되었고, 또한 그 내용을 보아도 속죄의 필수성, 실재성, 완전성을 말하면서 소키누스주의와 로마 가톨릭 논박하는 내용으로만 가득할 뿐 코케이우스주의 논박은 전혀 암시되지 않는다.<sup>137</sup> 투레티니의 출간된 두 개의 설교집에서도 도무지 코케이우스주의자들과의 논쟁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sup>138</sup> 그의 10개의 소논문 중에서는 고전 10장과 요 3장의 논쟁에 대해서 설명하는 마지막 4개의 글이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며 얼마 후에 나올 『논박신학강요』 2권의 코케이우스 논박에서도 고전 10장이 인용될 것을 예고하고 있으나,<sup>139</sup> 전체적으로 볼 때는 원론적인 설명 뿐이기에 코케이우스주의에 대한 논박을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코케이우스주의로 인한 혼란을 보면서 단순히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잠시나마 증가한 것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유향적인 태도 덕분에, 투레티니는

137 Turretinus, *De satisfactione Christi disputationes, cum indicibus necessariis* (Geneva, 1666).

138 Turretinus, *Sermons sur divers passages de l'Écriture Sainte* (Geneva, 1676); Turretinus, *Recueil de sermons sur divers textes de l'Écriture S. pour l'état present de l'Église* (Geneva, 1686).

139 Turretinus, *Disputationum miscellaneorum decas, in Francisci Turretini opera* (Edinburgh: 1847-1848), 4:205-382.

레이데커의 책을 추천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구원에 넘치도록 충분한 이와 같은 단순함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야만 하겠다고 생각한다. 보통 이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소한 질문들을 규명하고자 피곤하게 더 이상의 작업을 감당하는 것은, 평화의 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요 형제들의 영혼을 서로 대적하는 연구들로서 갈라놓아 경건한 이들에게 큰 폐를 끼치고 신앙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필수적이지 않다.<sup>140</sup>

## V. 기존 연구들 평가 및 수정

이제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약 언약 보증에 대한 투레티니의 견해를 다루는 문헌들을 평가할 차례이다. 첫째로,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를 동일한 푸치우스학파로 분류한 바빙크의 견해는 옳다.<sup>141</sup> 그들은 모두 *expromissio*를 지지하면서 구약의 구원이 절대적이고 완전하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푸치우스주의편에 분명하게 섰기 때문이다. 바빙크의 분류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비치(Beach) 역시도 옳다.

반면 반 아셀트는 기본적으로는 바빙크와 비치의 분류법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보다는 다소 유보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에 따르면 레이데커는 투레티니가 덧붙인 주의사항들을 생략하고 있다.

레이데커는...네덜란드 밖에 있는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fideiussio*를 거부했다고 언급한다. 프랑수아 투레티니 역시도 이런 맥락에서 언급된다... 여기서 레이데커가 헛짚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동시에 그는 투레티니가 언급하는 몇 가지의 유보사항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투레티니는 *fideiussio*와 *expromissio*가 그리스도의 보증직을 설명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법의 절차와는 그것이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40 Turretinus, *Institutio*, 12.10.32.

141 Herman Bavinck, *Sin and Salvation in Christ*, 214.

이러한 차원으로 질문이 어차피 이끌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제네바 교수 투레티니는 그나마 그리스도의 보증직의 충족성과 능력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expromissor* 쪽을 더 선호한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투레티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보증은 *expromissio*와 완전히 일치 될 수는 없다. 현안이 형법적인 빛이지 금전적인 빛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는 보증인에게 전적으로 전가될 수가 없는 것이다. 형법적인 빛은 구체적인 처벌과 도덕적인 죄책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의 경우는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지만, 우리의 도덕적인 죄책은 그리스도께 전가될 수 없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투레티니는 *expromissio*에 대한 코케이우스주의자들의 비판을 염두에 두고 있다.<sup>142</sup>

물론 레이데커가 1708년에 출간한 소책자 *Filius Dei Sponsor*만을 염두에 두고 말한다면 반 아셀트의 진술은 옳다. 하지만 *Vis veritatis*의 경우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우리는 위에서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를 비교하면서, 둘 다 *expromissio*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잘 인지하고 있음을 보았다. 특히 레이데커는 *Vis veritatis* 제2권의 첫번째 논쟁의 5번째 관찰(*observatio*)에서, *expromissio*가 그리스도의 보증직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 또한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공히 형법적 빛과 금전적 빛의 구분, 그리고 형법적 빛의 전가 가능한 부분과 전가되지 않고 은혜로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반 아셀트의 주장은 레이데커의 *Vis veritatis*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레티니와 레이데커의 차이점을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위에서 우리는 *expromissio*를 *fidejussio*로부터 엄밀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자체가 코케이우스주의에 대한 푸치우스주의자들의 반격 도구였음을 보았다. 비치는 그리스도의 보증을 표현하는 두 법률 용어들을 구별할 수 없다고 투레티니가 표현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의 법률 용어들이 그리스도의 천상적 보증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만

142 Van Asselt, "Expromissio or Fideiussio," 51.

설명하는 경향이 있지만,<sup>143</sup> 사실 투레티니는 이 땅의 법률 용어들의 한계만을 염두에 두고 그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코케이우스주의에 대한 논박 역시도 의도하면서 그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논박신학강요』 XII.ix.4가 *Vis veritatis* 제2권 첫 번째 논쟁과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fidejussio*와 *expromissio*의 엄밀한 구분을 부정하면서 4절의 둘째 문장을 *nec*으로 시작하는 투레티니의 문장구조로 미루어 볼 때, 비치와 반 아셀트의 해석은 좀 더 가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연구는 동일한 푸치우스주의의 입장에 선 투레티니와 레이데커 사이에서도 작은 차이점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밝혔다. 투레티니는 일반적인 코케이우스주의자들, 즉 “*Viri Docti*”를 상대하려고 한 반면에, 레이데커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던 특정 코케이우스주의자, 즉 “*Vir Doctus*”를 염두에 두고 그의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sup>144</sup> 또한 투레티니와 레이데커는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도 그 전개와 순서를 일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 비록 바빙크의 관측이 옳기는 하지만, 그의 관측만으로는 두 신학자의 서로 다른 어조와 논지 전개 형식에 배어있는 미묘한 차이점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 반 아셀트의 경우는 두 신학자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기는 했으나, 그들의 차이가 내용상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임을 잘 드러내지 못했다. 비치의 경우에는 투레티니가 논쟁의 당사자인 네덜란드 신학자들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잘 관측했지만, 원론적인 진술에 그쳤을 뿐 *Vis veritatis*와 비교하면서 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증명해내지는 못했다. 이 논문은 투레티니의 작품이 코케이우스주의자들을 논박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네덜란드 푸치우스주의자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독특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레이데커의 *Vis veritatis*와 투레티니의 글을 비교해보는 것임을 밝히고, 그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투레티니가 레이데커의 푸치우스주의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며서도, 그의 인신공격적인 요소들은 배제하고 부드러운 논박을 했음을 증명하였다. 앞으

<sup>143</sup> Beach, *Christ and the Covenant*, 275.

<sup>144</sup> Turretinus, *Institutio*, 12.9.9; Leydekker, *Vis veritatis*, a:73.

로의 연구들은 투레티니의 『논박신학강요』가 레이테커의 *Vis veritatis*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레티니의 작품의 독특한 면을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Asselt, Willem J. van. "Expromissio or Fideiussio? A Seventeenth-Century Theological Debate between Voetians and Cocceians about the Nature of Christ's Suretyship in Salvation History". *Mid-American Journal of Theology* 14 (2003), 37-57.
- Bavinck, Herman. *Sin and Salvation in Christ*. Vol. 3 of *Reformed Dogmatics*. ed. John Bolt. trans. John Vrien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6.
- Beach, J. Mark. *Christ and the Covenant: Francis Turretin's Federal Theology as a Defense of the Doctrine of Grace*. Göttingen: Vandenhoeck&Ruprecht, 2007.
- Cocceius, Johannes. *Operum Johannis Coccei*. Vol 7. Amsterdam, 1673.
- Gwon, Gyeongcheol. *Christ and the Old Covenant: Christ's Suretyship under the Old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9.
- Justinian. *Justinian's Institutes with the Latin text of Paul Krueger*. ed. trans. Peter Birks and Grant McLe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Leydekker, Melchior. *Vis veritatis, sive disquisitionum ad nonnullas controversias, quae hodie in Belgio potissimum moventur de testamentis et oeconomia foederum Dei*. Utrecht, 1679.
- Zucker, Lois Miles. *S. Ambrosii, De Tobia: A Commentary, with an Introduction and Translation*. PhD diss.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33.
- Muller, Richard.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Drawn principally from Protestant Scholastic Theology*. Grand Rapids, MI: Baker, 1985.
- \_\_\_\_\_. *After Calvin: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a Theological Tra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Mastricht, Petrus van. *Theoretico-practica theologia*. Utrecht and Amsterdam, 1715.

Turretini, François. *De satisfactione Christi disputationes, cum indicibus necessariis*. Geneva, 1666.

\_\_\_\_\_. *Sermons sur divers passages de l'Ecriture Sainte*. Geneva, 1676.

\_\_\_\_\_. *Recueil de sermons sur divers texts de l'Ecriture S. pour l'etat present de l'Eglise*. Geneva, 1686.

\_\_\_\_\_. *Francisci Turretini opera*. 4 Vols. Edinburgh: 1847-1848.

[Abstract]

François Turretini on Christ's Suretyship in the Old Testament: highlighting Turretini's connection to Leydekker

Gyeong Cheol Gwon

(Chongshin Reformed Theology Research Center Researcher, Historical Theology)

The Italian-Genevan theologian in the seventeenth century, François Turretini(1623-1687) bequeathed the paragon of Reformed Scholasticism,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One of the topics he investigated was the debate over Christ's suretyship and the saints' status under the Old Testament between Johannes Cocceius(1603-1669) and Gisbertus Voetius(1589-1676). Up to this point, his take on the debate has largely been overlooked in the academic circle. In order to fill this scholarly gap, I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Turretini had been affected by the Voetianism of Melchior Leydekker(1642-1721) and prove that Turretini aligns himself with Leydekker. By comparing Turretini's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Book 2, twelfth topic, questions 9-10 with Leydekker's *Vis veritatis*, I show that both of them share the belief that Christ's suretyship in the Old Testament is identical to what it is in the New. Thanks to Christ, the surety for God's promise, the sins of the elect must be fully forgiven in the Old Testament as well as in the New. Nevertheless, Turretini does not follow Leydekker when it comes to Leydekker's bitter criticism directed at the anonymous Cocceian. Turretini takes a conciliatory gesture towards the Cocceians inasmuch as he stays in the Voetian camp. Seen in this light, Turretini can be regarded as the Voetian

theologian whose attitude toward the Cocceians is non-militant and conciliatory. Hence, both Van Asselt's argument, which distinguishes Turretini's position from that of the Voetians, whose champion was Leydekker, and overly simplified description of Turretini as one of the Voetians while omitting the details of his conciliatory gestures, should be somewhat revised.

**Key Words:** Turretini, Old Testament, Suretyship, Forgiveness, Leydekker, Cocceian-Voetian Controversy